

물량 부족으로 2배 이상 폭등한 해삼 가격

청두지사

크게 치솟은 해삼 가격

- 해삼, 전복은 중국에서 보양식으로 대우받는 인기 해산물이다. 하지만 올해는 해삼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 공급 부족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. 가을은 해삼 수확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폭염으로 양식장 해삼들이 대거 폐사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.
- 중국 해삼의 주요 산지인 대련의 한 해삼 양식업자는 1근(0.6kg)에 7~8개 되는 해삼의 가격이 현재 100~120위안(약 16,200~19,500원) 정도로 지난해 50~60위안보다 2배 이상 상승했으며,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밝혔다. 그러나 이렇게 치솟는 해삼의 가격에도 양식업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.

해삼 생산량 하락으로 신음하는 관련업계

-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월 말 폭염으로 해삼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. 전에는 200여 무의 해삼 사육장에서 적어도 2~3만 근(12,000~18,000kg)의 신선한 해삼을 수확할 수 있었지만, 올해는 3,000여 근(약 1,800kg)밖에 되지 않았다. 지금은 한 근에 200위안(약 32,500원) 정도로 비싼 가격이나, 오히려 해삼이 없어 팔지 못해 200만 위안(약 3억 2,614만 원)이나 손해를 보고 있다.

- 해삼의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가격은 따라서 크게 상승했다. 양식업자들은 해삼을 수확할 수 없고 가공업체들은 해삼이 없어 모든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다.
- 해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 양식업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올 가을 어린 해삼을 방류하는 일이 뚜렷이 감소했다. 업계에서는 해삼의 생장주기를 보면 전체 해삼시장의 회복에는 적어도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중국시장의 장래 유망 상품인 한국 해산물

- 문제는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 해삼 양식업, 가공업도 물량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.
- 지난 알리바바의 허마센성 회의에서도 발표된 바처럼 중국은 한국의 수산물, 특히 전복 등을 중국시장에서 장래 유망한 상품으로 내다보고 있다. 수산물의 특성상 중국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이 물류나 상품의 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.
- 따라서 중국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시장성을 내다보았을 때, 전복이나 해삼 등의 상품성을 높이고 관련 상품을 개발해나간다면 중국시장 내 안정적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